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합의

최 원 선임연구원

- 11월 29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유로존 국채 투자자들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1월 29일 회의를 통하여 EFSF 증액 방안에는 합의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또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신용위험으로 추가 국채 발행이 어려운 유로존 국가들의 신규 발행 국채의 손실 발생 시 20~30%를 보전해 주는 방안에도 합의하였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함.
  
- 독일 등의 거부로 ECB 국채 매입, 유로본드 발행이 어려운 데다 EFSF 증액 합의마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2월 9일 EU 정상회담의 재정통합안 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재정통합안은 유로존에 단일 통화(유로화)와 단일 중앙은행(ECB)은 존재하고 있으나 강한 통제력과 리더십을 가진 단일 재정당국이 없어 일부 국가들의 위기 상황에도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고 있음.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2월 9일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담에서 재정통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예상되며, 유로존 17개국이 우선적으로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EU 2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옵션이 추가되고 독일이 동 재정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존 재정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통합안이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함.

(WSJ, FT, 11/30)